

하루를 시작하며



김연
시인

2년 1개월 동안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확진자 수는 해제 이전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기본 철학은 다름 아닌 ‘과학 방역’이다.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이란 사전적 의미의 ‘자율’은 그 방향성이 무척이나 모호하다. 그 모호함은 ‘과학 방

‘자율’과 ‘책임’ 사이에서

역’ 역시 마찬가지로 다가온다. 결국 스스로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서는 것을 ‘자율 방역’이라 지칭한다면 과연 ‘각자도생’과 무엇이 다른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멈춰있던 일상이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미루었던 모임과 행사가 재개됐고 숨을 고르던 하늘 길도 열리며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늘어났다.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소소한 행복의 가치를 모두가 간절하게 배웠던 시간이었기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일상은 가능하리란 기대로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한 전망은 한동안 희망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변을 맴돌던 바이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빨

을 드러냈다. 유독 뜨거운 올해 여름, 따끈거리는 목상태를 헝서리 냉방병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앞두고 혹시나 했던 항원검사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나의 감염여부에 앞서 만났던 인연들이 무겁게 마음에 짓눌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민낯을 마주하자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몸도 아프고 마음은 더욱 아팠던 격리기간 동안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TV에서는 연일 현실화되고 있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다. ‘과학 방역’을 기본 철학으로 내세운 정부는 이제 역학조사도, 격리 이후 별도의 음성 확인도 하지 않는다. 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확진 이후 40C를 오가는 고열에 앓고 있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간 지인은 두

사설

‘용역 만능주의’ 빠진 도정, 이젠 바꿀 때다

제주도정이 각종 정책이나 사업 등을 외부기관·전문가에게 맡겨 판단하는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 도정이 무분별한 용역 발주로 예산낭비에다 공직사회 의존성만 키운다는 비판까지 받는 처지다. 도가 과도한 용역 관행을 깨도록 개선책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도가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연구용역비만 24개 사업 42억여원이다. 올해 전체 용역비는 추경을 합쳐 120억원에 이른다. 도원들이 과도한 연구용역비 편성, 공무원 역할 떠넘기기, 용역 만능주의 등 비판을 당연히 제기하는 이유다. 오영훈 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외치지만 과도한 용역비 탓에 ‘공허한 메아리’란 힐난마저 나온다. 도의 해명도 이해가 된다.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용역이나 도시

사 공약 용역,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용역 등의 경우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고 도가 과도한 용역 질책을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 그간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나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경우 수차례 용역에도 가지적 ‘밀그림’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거나, 해야 할 업무도 관행적으로 용역에 기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도가 자체 사전 심의기능 강화, 사후 평가,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 등 동원 가능한 개선책을 통해 용역 만능주의를 깰 때다. 용역은 전문성 확보나 객관적 검증 등이 이유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공직사회 스스로 정책연구를 소화할 수 있도록 ‘공허한 메아리’란 힐난마저 나온다. 도의 해명도 이해가 된다.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용역이나 도시

열린마당

여름철 폭염 미리 알고 대비하자



강창우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폭염’은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높아 더위가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는 상태로 정도가 심하면 자연재해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소방청은 기상재해 중 폭염을 가장 큰 재해로 꼽기도 한다.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폭염은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낮의 뜨거운 햇빛은 피해야 하며, 야외활동 시 옷차림을 가볍게 한다. 또한 카페인 성분 음료나 주류를 피하고, 물을 많이 마셔 수분을 보충한다. 피로할 경우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무리한 등산이나 장시간 농업활동을 피하는 게 좋다. 만약 온열환자를 보게 된다면 환자의 체온을 빨리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고,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목, 겨드랑이 등)에 아이스팩을 대고 체온을 떨어뜨린다. 이 때, 의식이 없는 경우 함부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위험하니 삼가야 한다. 그리고 가장 빨리 병원에 도착해 전문가의 처치를 받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지나친 일광노출을 줄이고, 외부 활동이 필요한 경우 기상청 날씨정보를 확인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현장 어려움 실행과정에 반영하겠다”

오 지사, 민생안정 의지 피력
○...오영훈 제주지사가 26일 고금리·고유가·고물가 ‘신3고’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 민생안정 의지를 적극 피력.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수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센터, 여행업 공유오피스, 착한가격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약속.
오 지사는 “제주도와 영세상인이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각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오늘 현장에서 어려운 사정을 직접 듣고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설계 및 실행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언급. **고대로그자**

학생 토론 ‘이열치열’
○...서귀포지역 중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최근 사회적 트렌드인 주4일제 근무, 제주 입도 관광객 수 제한 등의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이며 ‘이열치열’,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지난 25~29일 5일간 서귀포중학교에서 지역 내 11개교, 중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2022 하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를 운영.
시 관계자는 “방학 중에도 토론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호응도가 대단하고, 참여도 역시 높아 무더운 날씨에도 배움의 열기로 가득하다”며 “토론 아카데미는 2011년 시작, 2013년 토론 한마당 개최로 이어지며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비효율 버스준공영제, 대수술 이뤄져야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꾼다고 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다. 원희룡 도정의 야심작이었다. 2017년 8월부터 시행했으나 이제 만 4년이 되었고 있다. 문제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도무지 뭐 하나 나아진 것이 없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착수한 ‘버스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대중교통 수요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보다 22% 감소한 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노선 운영은 버스 대수가 준공영제 이전보다 크게 늘었지만 수요 대비 효율성은 감소했다.

노선 효율성은 전 노선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이용객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보조금은 수요 증가에 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운송원가 증가율이 높았다.
원 도정이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목적은 한마디로 대중교통 활성화다.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참담하다. 가장 중요한 버스 이용객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개편 이전이나 이후나 버스 승승분담률이 14%대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반면 개편 이후 투입되는 예산은 엄청나다. 준공영제 도입 후 매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000억원에 이른다. 효율성이 낮은 버스준공영제에 쏟아붓는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오영훈 도정은 이같은 비효율적인 버스준공영제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부 고
강덕창(에릭슨엘지) 어머니 밀양 박씨 영육(향년 78세)께서 서기 2022년 7월 24일 02시 1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2년 7월 27일(수요일)
▶ 발인일시: 2022년 7월 28일(목요일) 오전 9시
▶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1층 분향실
▶ 장 지: 상가리 선영

남 편 강성요
아 들 강덕창 며느리 이재연
딸 강혜선 사 위 이승진
혜숙 김동록
혜림
손 자 강지윤
이미나
라두현

※ 연락처 : 강성요 010-2293-3797
강덕창 010-2272-3797
강혜선 010-6342-3797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실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한라체육관
● 제주은행 한국병원
국제보청기(국제기)점
실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